

동지가 금속노조다!

# 대전충북지부

40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9월 29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PLA자본의 의도  
결국은  
구조조정

## PLA자본, 어디까지 갈 건지

대화도 없고, 그저 정해진 수순대로 앞만 보고 가고 있다. PLA자본은 그냥 일방통행 중이다. 1, 2, 3차 희망퇴직을 진행했고, 3차 희망퇴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리해고 야욕을 보이고 말았다. PLA자본에게 희망퇴직은 그저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어떻게 공장을 정상화할지 아무런 고민도 없다. 합법적인 정리해고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뿐이다.

## 지금 정리해고는 아무 명분이 없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을 때, 최후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PLA자본은 계속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흘러냈고,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뭔가 굉장한 위기에 처한 것처럼 만들어왔다. 거기에 이어서 희망퇴직을 3차까지 연달아 실시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을 해온 것처럼 꾸몄다. 지금까지의 행태가 전부 정리해고를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짜놓은 판이었던 것이다. 경영정상화는 말만 늘어놓을 뿐, 사실은 노동자들 쫓아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지금껏 PLA자본이 보여온 행태 때문에 이미 5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공장을 떠났다. 기존 조합원의 절반이 떠난 것이다. PLA자본은 손에 피 한방울 안묻히고 정리해고 효과를 보았다. 그런데도 아직도 더 정리해고 하겠다는 탐욕을 보이고 있다.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다. 이번 정리해고 건은 PLA자본의 패착이 될 것이 분명하다. 더 이상의 정리해고는 아무 명분없다. 탐욕일 뿐이다.

## 자본의 탐욕엔 노동조합이 약!

조합원은 절반으로 줄었고 희망퇴직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현장을 버릴 생각이 없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그래도 공장장은 정리해고까지 하겠다는 탐욕을 못버리고 있다. 이런 탐욕에는 노동조합의 단결된 투쟁만이 약이다.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단단히 뭉쳐있으면 PLA자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무리하게 정리해고를 시도하다가 뚱통 당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PLA는 당장 공장장부터 내보내고 노조와 대화할 공장장을 새로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못나간다! 정리해고는 공장장부터!

# 응답하라! 대전고법!

대전고법이 응답해야할 때가 되었다. 법에 정해진 일정대로라면 재정신청을 한지 3개월이 되는 9월 말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 노조파괴 사업주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인지, 그냥 면죄부를 주어 사법정의의를 짓밟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권력에 빌붙은 정치검찰은 면죄부를 주었지만 법원은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 마저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노조파괴 사건으로 대전고법과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이 되어있다.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은 대전고법에,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는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들 사건 모두 9월 말이면 재정신청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

노조파괴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1차적으로 이뤄졌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 덕분에 2년, 3년씩 시간을 허비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노조파괴 범죄로 받은 상처를 딛고 일어나 민주노조를 지키고 강화했다. 법은 사업주들을 봐줬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을 응징했다. 우리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투쟁으로 노조파괴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법원은 이런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판결로 보답해야할 것이다. 언제까지 검찰, 법원이 해야할 일을 망각한 채,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것인가!



##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싸우겠다”

세월호 참사 165일을 맞은 27일, 세월호 유족들과 전국의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를 진행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5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한 뒤 도심 행진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약 4천 여 명의 농민과 노동자, 시민 등이 참여했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5개월이 넘는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은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해 싸움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시민들도 진상규명을 위한 직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보행진도 이어졌다. 인천과 수원, 양평, 성남 등에서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은 1박 2일간의 도보행진을 거쳐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 도착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심기일전해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가족대책위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심기일전해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거나, 혹은 이와 버금가는 안을 정치권이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며 “다시 협상에 임하는 여야는 당리당락을 떠나 원칙에 부합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도 다시 한 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힘을 모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풍산마이크로텍 정리하고, 항소심도 전원 ‘부당해고’ 판결

(주)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에서 정리하고 된 노동자 48명이 법원 항소심에서도 전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6행정부(부장판사 윤성근)은 24일 오후 2시 20분 열린 항소심에서 48명의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16일에도 (주)피에스엠씨의 해고노동자 48명 전원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불법적이었으며, 노조와의 성실협약의 의무 또한 위반했다는 이유다.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회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풍산그룹은 2010년 12월 휴가 기간을 틈타 풍산마이크로텍을 (주)하이드스에 매각했으며, 경영진으로 들어온 (주)피에스엠씨는 아프리카 카메룬 금광개발사업을 위한 400억 대의 유상증자에 노조가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2011년 11월 7일 사전 통보 없이 노조 간부 70%를 포함한 현장직 58명을 정리하고 했다.

부산지방법노동위원회는 2012년 2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나선 해고자 52명 전원을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52명 중 30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해고자 52명 중 4명은 이번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 jswcool@naver.com



<9.22 촛불집회\_콜벤 공연>



<9.22 촛불집회\_콜벤 공연>



<9.24 노조파괴분쇄 유성지회 결의대회 >



<9.25 대전고법 앞 노숙 1인 시위>